

---

언어구분	KOR	논문구분	원저/구연	논문분야	척추
논문제목	척추 수술 환자에서 심리적 상태가 수술 후 만족도 및 임상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				
영문제목	<b>The effect of psychological status on postoperative satisfaction and clinical outcomes in spinal surgery patients</b>				
발표자	이상현	책임저자	박예수		
저자	이상현, 김홍식, 백승욱, 박예수				
기관명	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구리병원 정형외과학교실				

**서론 :**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에서 수술 전 불안, 우울 및 낙관적 사고에 따른 환자의 심리적 상태가 수술 후 만족도와 임상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.

**재료 및 방법 :**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에서 수술 전 불안, 우울 및 낙관적 사고에 따른 환자의 심리적 상태가 수술 후 만족도와 임상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.

**결과 :** VAS와 ODI 값은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( $P<0.0001$ ) 임상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며, 수술 후 만족도에 있어서는 추시 환자의 77.1%(159명)가 수술 결과에 만족하였다. 수술 전 심리적 상태와 수술 후 임상적 결과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낙관적 사고는 수술 후 ODI의 호전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( $P<0.0001$ ), 불안 척도 및 우울 척도는 수술 후 ODI의 호전 정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( $P<0.0001$ ). 그러나, 수술 후 VAS의 호전 정도는 수술 전 낙관적 사고, 불안 및 우울 척도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. 환자의 수술 후 만족도에 대한 그룹 간 비교에서는 만족 군이 비만족 군에 비해 수술 전 낙관적 사고에 있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고( $P<0.0001$ ), 수술 전 불안 척도 및 우울 척도에 있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( $P<0.0001, 0.0058$ ).

**결론 :** 수술 전 불안, 우울 및 낙관적 사고에 따른 환자의 심리적 상태는 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 및 임상적 결과에 있어서 수술 후 주관적 장애의 호전 정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따라서, 수술 후 임상적 결과와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술 전 환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세심한 평가 및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

**acknowledgment :**

심리적 상태, 낙관적 사고, 불안, 우울, 척추 수술

---